

생두값 '고공 행진' 동네 카페들 '비명' 프랜차이즈 '저가 공세'

생두값 지난해 1kg당 8000원서 올해 1만4천원으로 급등 손님 줄어듦 '스페셜티 커피' 값 인상도 못하고 '속앓이'

광주지역 소규모 동네 카페 운영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대형프랜차이즈 커피업체 틈새에서 스페셜티 커피로 겨우 버티는 상황에 생두(볶기 전 커피 열매) 가격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만난 스페셜티를 판매하는 영세 카페 상인들은 매일같이 오르는 생두 가격을 감당하기 벅잡다고 호소했다.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서 2년째 로스터리 카페(생두를 볶아서 판매하거나 커피를 직접 추출해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용(35)씨는 "지난해부터 매주 생두 가격 인상 공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여름과 비교했을 때 딱 2배 올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거래처 15곳을 두고 있지만 폐업을 면치 못하는 가게들도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 생두 가격의 급등은 달러 환율 급등과 원산지 이 상기후가 원인으로 꼽힌다. 생두 거래의 기준이 되는 달러 환율이 꾸준히 증가해 1400원대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품질이 계속돼 블렌드 커피에 많이 사용되는 브라질 생두의 경우, 지난해 대비 10~15% 정도 추가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것이다. 또 전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생두생산 국가에 가뭄과 폭우가 이어져 생두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 스페셜티 커피 원두의 생산지·향·맛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이 넘는 생두로 만든 커피. 파나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자란 '게이샤' 품종이 대표적이다. 특정 국가에서 특정생산자가 생산한 단일 품종은 '싱글 오리진', 2개 이상 품종을 섞는 경우는 '블렌드'로 불린다. 로스터리 카페와 빵집을 겸하고 있는 김모(30·남구 봉선동)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생두 가격이 최대 40%까지 올랐다"면서 "지난해 1kg당 8000원이던 생두 품종이 이달 말 기준 1만4000원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카페를 직영하는 데다 빵을 판매하고 있어 아직은 버틸만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사이에서 점점 더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환율상승과 기후위기로 생두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격을 더 올린 지역민들이 지갑을 닫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원가부담 때문에 일부 동네 커피 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커피 가격을 올리고 있다. 서구 치병동에서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는 손현진(43)씨는 "생두가 지난해 초에 비해 최대 80% 올랐다. 일반 카페보다 로스터리가 조금 더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손씨는 결국 버티다 못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손씨는 "본격적으로 저가형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가 엄청나게 많아진 2019년부터 개인 카페 매출이 반토막났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찾지 않을까봐 가격도 못올리고 문을 닫는 동네카페도 많은 상황이다. 동구 동명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영진(72)씨도 원두 가격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쉽

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3년 전부터 원두 봉지 인쇄 비용을 줄여가면서까지 납품가를 유지해왔지만 일주일 새 1만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생두 가격이 오르다보니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씨는 "5년 전 코로나19 이후 회복하지 못하다가 작년에는 금리 인상, 계엄까지 겹쳤다. 경기 회복에 몇년이 걸릴 지 감도 잡지 않는다"며 지난해 비해 45% 매출이 줄었는데 생두 가격까지 오르니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형프랜차이즈도 커피가격을 올리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1월 톨사이즈 커피를 300원 인상했고, 일부 저가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도 가격을 올렸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 통계정보에 따르면 13일 기준 커피(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전월대비 7.1% 상승한 1t당 9675달러를 기록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동장군 오기전에 대동강물도 녹인다는 절기상 우수(雨水)를 하루 앞두고 17일 광주시 북구 용전동 영산강변에 서식 중인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 무리가 날개를 펼쳐며 날아오고 있다. 기상청은 18일부터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강한 바람이 부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재 피해' 송정5일시장 상인들에 긴급 생계비

광산구, 73만~218만원 6개월간

광주시 광산구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송정5일시장 상인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광산구는 화재 피해 상인 지원 대책의 하나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이번 화재로 전소 피해를 입은 14개 점포 상인 중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7명이다.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인들은 받을 수 없다. 생계비는 중위소득 75%이하 영세 소득 피해 상인에게 지원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73만원, 2인 기준 120만원, 3인 기준 154만원, 4인 기준 187만원, 5인 기준 218만원씩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구는 지원 대상자를 확인한 뒤 개별 안내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신청서와 화재증명원(또는 현장확인서)을 제출하면 된다. 송정5일시장은 광산구가 소유하고 있으며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는 화재 피해를 입은 점포를 모두 철거한 뒤 새로 지을 계획이다. 한편 지난 14일 새벽 1시께 송정5일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38칸을 태우고 30여분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고려인마을 "삼일절 만세운동 함께해요"

106주년 기념 참가자 모집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행사

광주고려인마을이 삼일절 106주년을 맞아 열리는 만세운동 재연 행사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광주고려인마을은 오는 3월 1일 삼일절 106주년을 맞아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일원에서 '빼앗긴 조국, 그날의 함성'을 주제로 한 만세운동 재연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와 월곡동 주민, 지자체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는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며, 참가자들은 마을 돌레길을 따라 걷는 가장 행렬, 연해주 삼일절만세운동 재연, 독립선언서 낭독, 고려인마을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리랑'의 기념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행사참가자에게는 만세운동 재연에 사용될 태극기와 함께 중앙아시아 전통빵 '리보시카'와 음료 등 다양한 선물이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고려인마을(062-961-1925)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행사 당일 오전 10시까지 월곡고려인문화관을 방문하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신조아 고려인마을 대표는 "광주 고려인마을이 매년 개최하는 삼일절 만세운동 재연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고려인마을 주민과 지역사회 간 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노동부 정식 사업 되나

전남노동권익센터 신청서 제출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안전모 지급 및 이름 불러주기'사업(2024년 11월 27일자 광주일보 7면)이 고용노동부 정식 사업으로 채택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최근 추진중인 3개 사업에 대해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센터가 전남노사민정협의회에 사업 신청을 하면 전남은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

출해 정식 사업 채택 시 국가 예산을 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센터는 올해 5월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이주노동자 작업복 나눔', '이주노동자에 식사를 배려함시다', '이주노동자 안전모 지급 및 이름 불러주기' 사업을 시행한다. 이주노동자 작업복 나눔과 식사 배려 캠페인은 지난해 처음 시행했으나 안전모 지급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된다. 현장 이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이 반영된 '이주노동자 안전모 지급 및 이름 불러주기' 사업은 센터

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건설업 등 현장에서 이름대신 '야' 또는 비속어로 불리우던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자 각각의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개별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과 인권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대비 큰 효율이 기대된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문길주 전남권익센터장은 "노동의 문제는 국가가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 지역 공동체도 함께 나서 이주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uwayapply.com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